

“송국리유형과 역삼동유형”에 대한 토론문

김권중 (중부고고학연구소)

본 발표문은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중기의 사회변동에 관한 내용으로 호서지역을 A~C권(역)으로 대별하여 각 권(역)의 변화상과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전반적으로 전기에서 중기로의 변화상이나 송국리유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발표 제목과는 달리 역삼동유형과 송국리유형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금번 학술대회의 주제와 관련하여 송국리유형과 역삼동유형의 관계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1. 발표자는 과거 송국리유형의 외부유입설을 지지한 연구자로 알고 있다. 당시 논문(禹延延 2002)에서 구체적인 위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외부를 가정한다면 호서지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발표에서는 송국리유형의 등장 과정에서 역삼동유형뿐만 아니라 가락동유형이 지녔던 의미도 각각도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토론자가 오해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내용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외부유입설과는 다른 관점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고 싶다.
2. 발표문에서 송국리유형의 등장 과정에 관한 설명은 언급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역삼동유형의 소멸 또는 쇠퇴 과정이나 그 양상에 대한 설명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송국리유형과 역삼동유형의 관계에 관해서도 자세하지 않다. 이에 대한 보완 설명을 듣고자 한다.
3. 발표자는 송국리유형의 시공간적 특징을 검토한 결과 금강 중하류역에서 10세기경 등장한 유구경식 비파형동검으로 형성된 관계망을 통해 기원전 10~9세기에 금강 유역권에 먼저 등장하고 주변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전기 사회를 재편하여 중기 사회를 형성하는 중심유물을 비파형동검으로 보았는데 전체 무덤의 수가 900기가 넘는 것에 비해 그 수는 4점에 불과(?)¹⁾하고, 이 가운데 비래동 지석묘와 오석리 오석산 주구석곽묘는 송국리유형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무덤이다. 비파형동검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지만 송국리유형만의 고유한 유물도 아니고 이를 통한 관계망 형성을 가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 아닌가?

1) 최근 한국문화재단이 조사한 청주 학평리 219-5번지 유적에서 가락동유형의 주거지이지만 비파형동검 1점이 출토되었다.